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1979년 개교와 함께 개관한 박물관은 역사·고고·민속자료 등을 발굴, 수집, 연구, 복원, 전시하여 교수와 학생의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회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는데, 고성이씨(固城李氏) 응태(應台, 1556~1586) 무덤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개최한 “450년만의 외출”을 통해 소개된 한글로 된 ‘월이 엄마 편지’와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는 KBS 추적 미스터리 “미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역사스페셜 “조선판 사랑과 영혼” 등에서 자세히 보도하여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저널 『내셔널지오그래픽』(2007년 11월호)과 미국과 영국의 고고학 잡지 『엔티쿼티』(2009년 3월호)와 『아케올로지』(2010년 3/4월호), 중국 국영 CCTV-4등을 통해 외국에도 소개되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관람시간 10:00~17:00

휴관일 토·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독도 전시기간 중 무휴

관람료 무료



760-74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Tel. 054-820-7421 / Fax, 054-820-7423

<https://museum.andong.ac.kr/>


안용복기념관 독도수호 순회전


# 옛 기록과 사건으로 보는 우리 獨島

2015. 10. 12(월) ~ 11. 13(금)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

주최  울릉군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후원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한반도 동쪽 바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섬 독도가 있다. 과거 독도는 해상왕국으로 맹위를 떨친 우산국의 영토였다. 512년 이사부에 의해 신라에 복속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독도 = 한국땅’이라는 인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일반 대중이 ‘왜 독도가 한국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한일 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문의 여러 하위분과에서는 독도영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와 연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은 현재 귀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 소장 고지도 및 고문서와 함께 독도사진 및 독도 관련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독도를 알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바르게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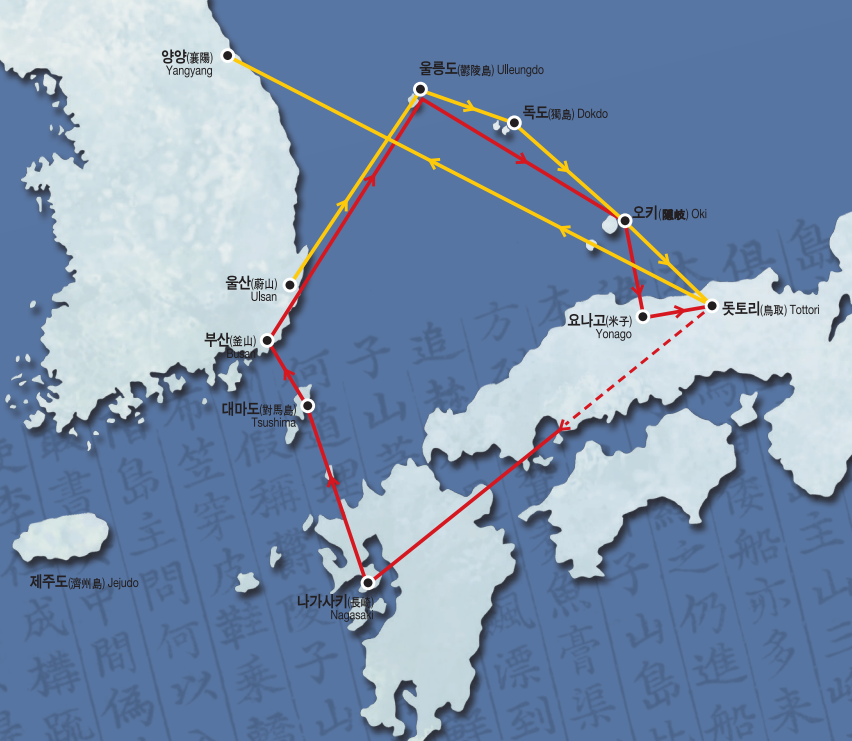
## 안용복의 도일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출생과 사망 연대 및 신분 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소재의 다양한 사료 안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당시 안용복의 행적은 후세에 전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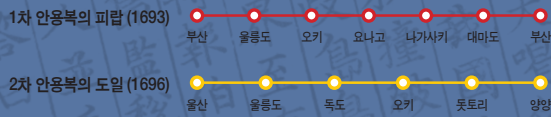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 도일을 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 오오야 기문의 어부들에게 강제로 피랍된 것이며, 두 번째는 1696년 자발적 행위에 의한 도일이다.

이 두 차례 도일 결과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조선은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에 관한 권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민간외교가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안용복의 공적은 지금까지도 독도지킴이로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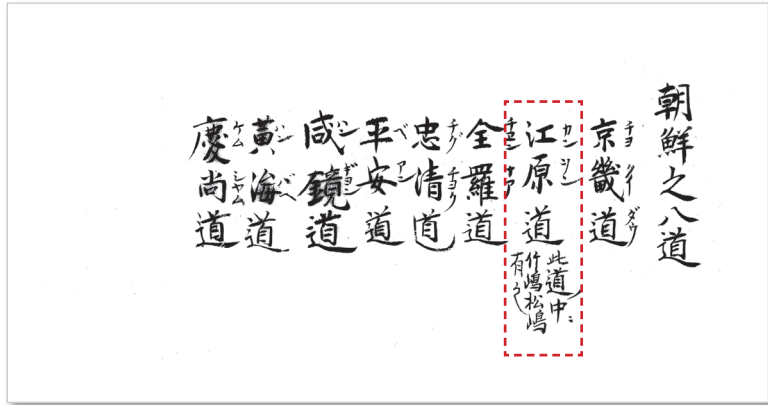
〈안용복 행로도〉





#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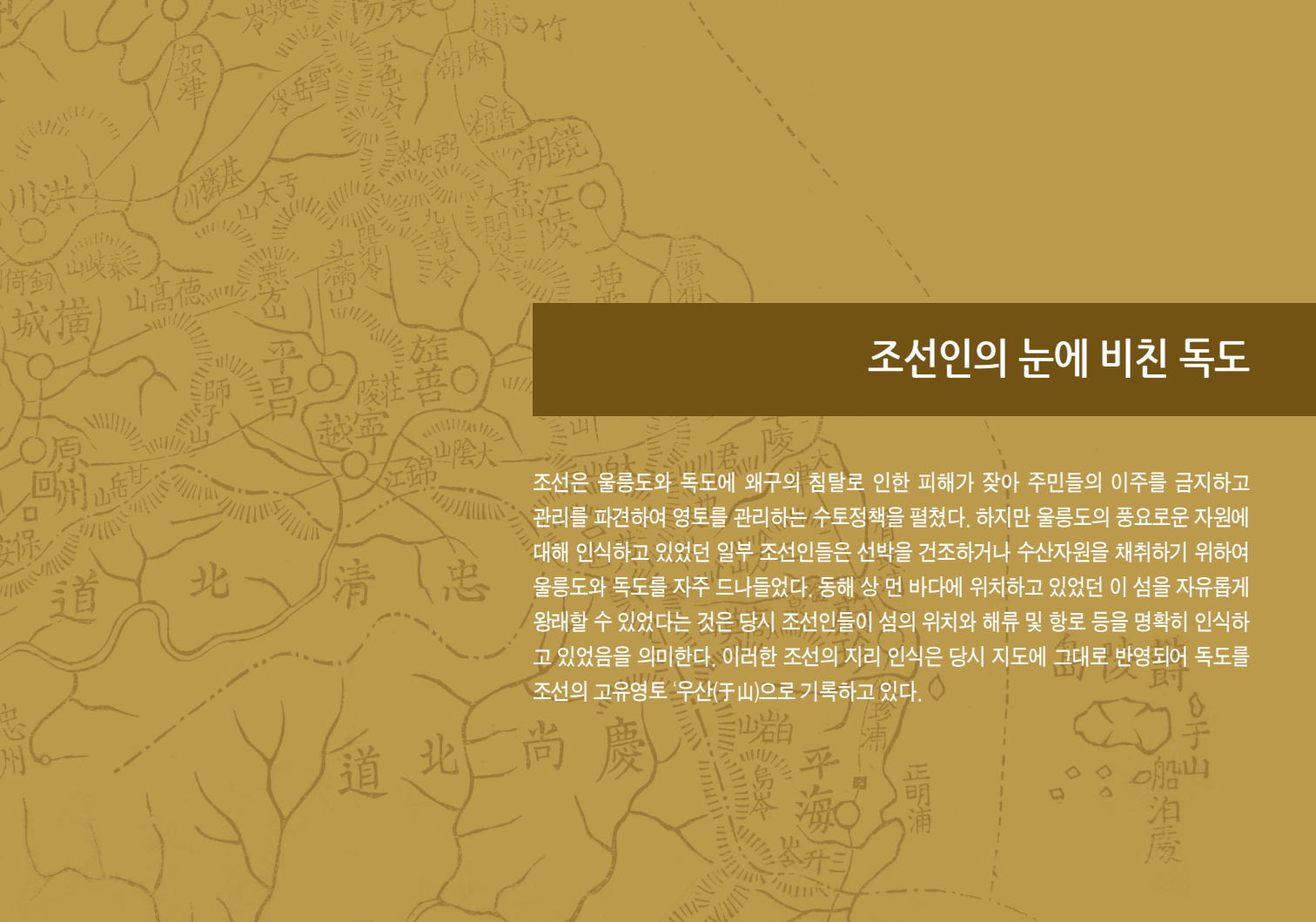
무라카미家 / 일본 / 1696



이 문서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무라카미家에서 공개한 것으로

1696년 도일한 안용복과 그 일행이 오키섬에 기착하였을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이 조선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속해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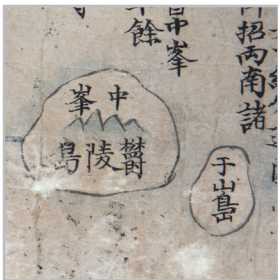


## 조선인의 눈에 비친 독도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에 왜구의 침탈로 인한 피해가 잦아 주민들의 이주를 금지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영토를 관리하는 수토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울릉도의 풍요로운 자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일부 조선인들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산자원을 채취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드나들었다. 동해 상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섬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이 섬의 위치와 해류 및 항로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선의 지리 인식은 당시 지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독도를 조선의 고유영토 '우산(于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 해좌전도

미상 / 조선 / 1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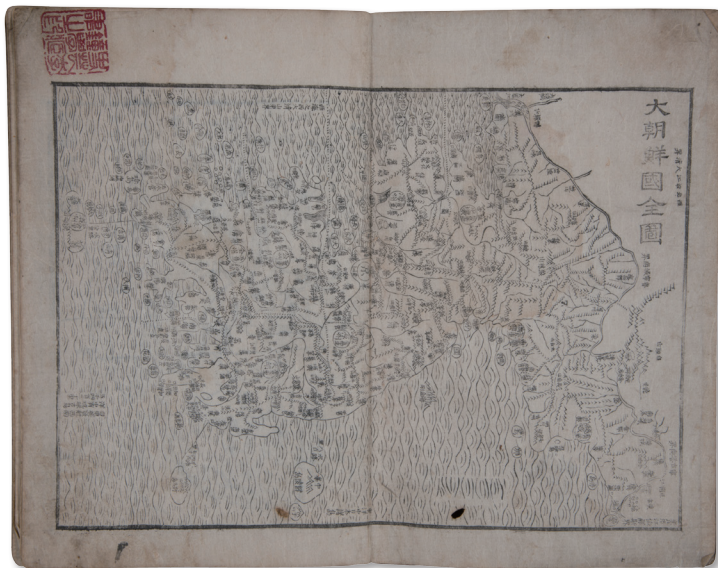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전도 필사본으로  
18세기 이후 지도의 전통에 따라 울릉도와 우산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울릉도·우산의 양쪽에 울릉도의 역사와 지리가 적혀 있으며,  
울릉도와 울진 사이의 뱃길도 표시되어 있다.





# 대조선국전도

미상 / 조선 / 19C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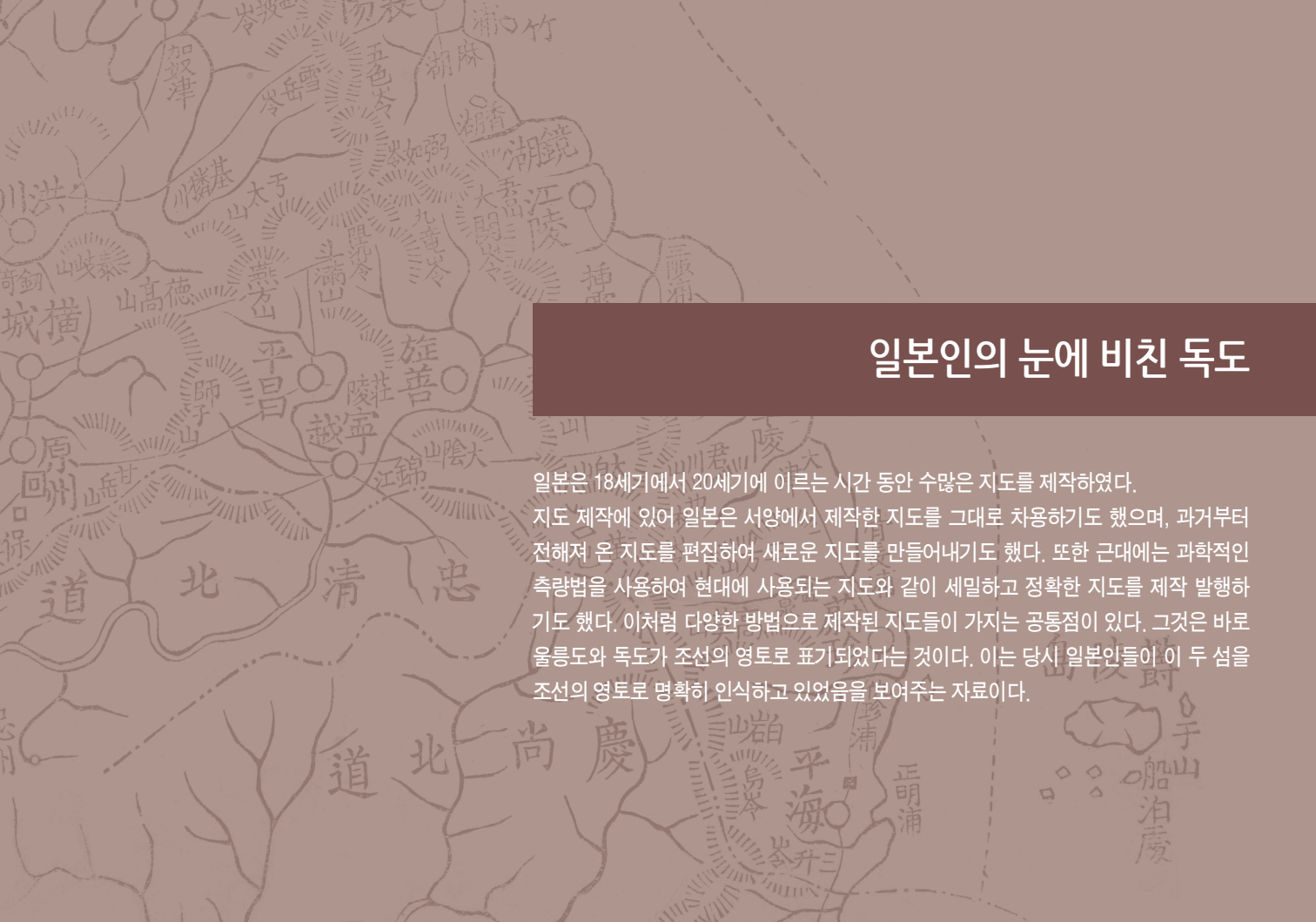


이 지도는 11본으로 이루어진 「팔도지도총론」 중 일부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于山)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울릉도 왼편에는 水路八百里(수로팔백리)라 부기 해 놓았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울진과 울릉도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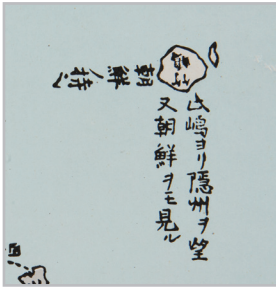


## 일본인의 눈에 비친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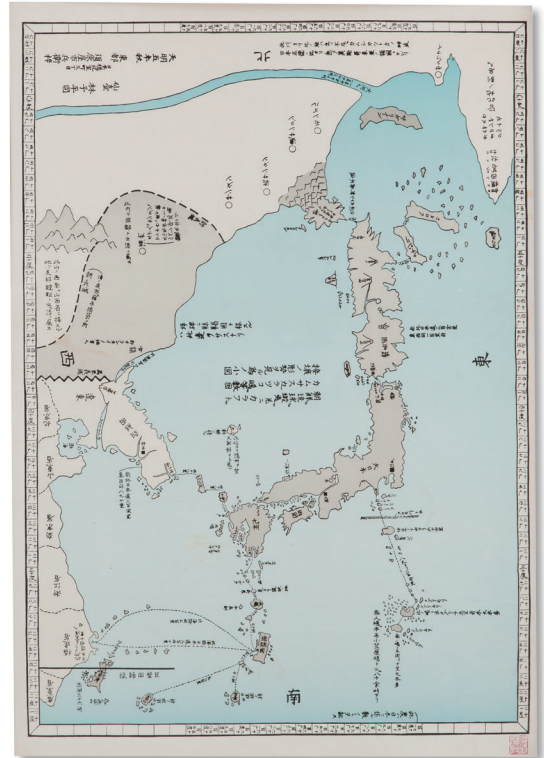
일본은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 제작에 있어 일본은 서양에서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으며, 과거부터 전해져 온 지도를 편집하여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근대에는 과학적인 측량법을 사용하여 현대에 사용되는 지도와 같이 세밀하고 정확한 지도를 제작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된 지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삼국접양지도

林子平 / 일본 / 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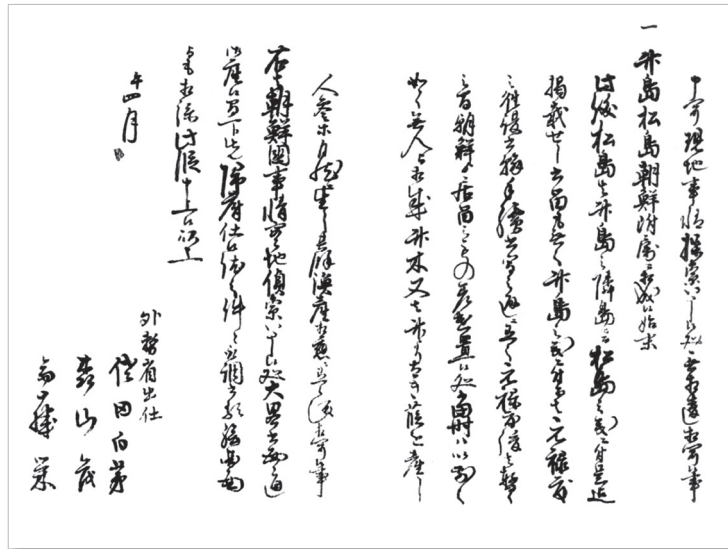
『삼국통람도설 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지도 5장 중 하나로  
 조선, 류큐, 북해도가 그려져 있다. 삼국은 각기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동일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울릉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좌측에는 "조선의 것(朝鮮ノ持)"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日本外務省 / 일본 / 1869



일본 메이지 정부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1869년 외무성으로 하여금 조선을 은밀히 정탐하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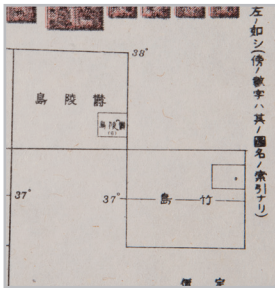
조선을 정탐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이 기록되어있다.

이는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육지측량부발행지도 구역일람도기일

陸地測量部 / 일본 /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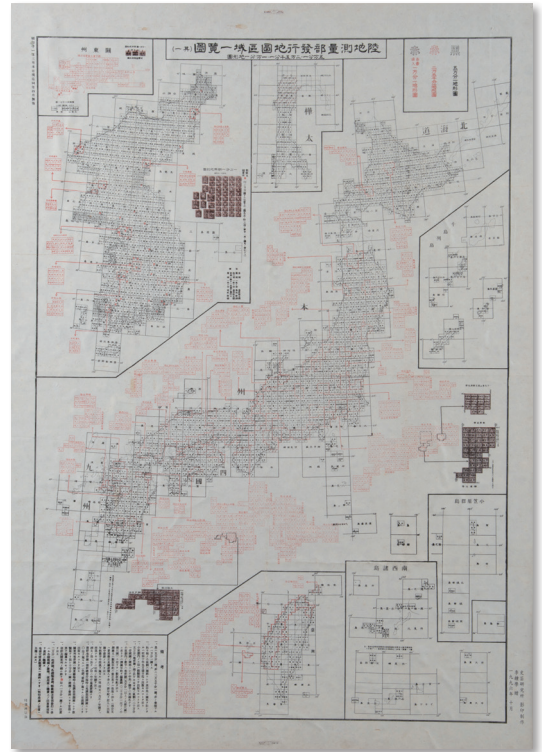
일본에서 육도(陸圖)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받던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관찬(官撰) 지도이다.

조선은 지도상의 좌측 상단에 세밀하게 구역을 구획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분계선 안에 鬱陵島(울릉도)와 竹島(죽도)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본래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복속한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독도영유권의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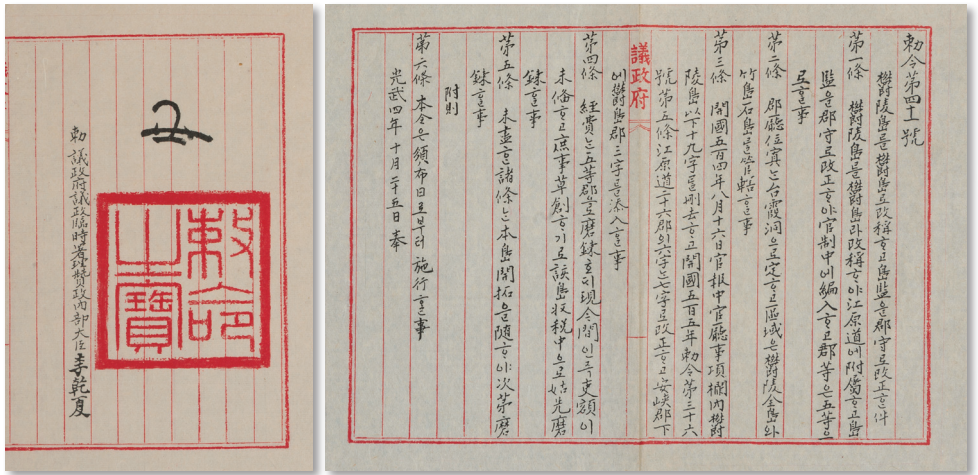
조선은 1883년 수토정책을 철회하고 울릉도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동시에 본격적인 개척을 시작한다. 그리고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근대적지방관제에 편입시킨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가지는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불법적인 독도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미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하여 시마네현에 편입을 결정한 일본각의결정문을 시작으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 영토편입 고시문은 '회람(回覽)'이라는 직인이 찍혀있는 소위 돌려보는 문서에 불과했으며, 이 고시에 대한 사실이 관보나 언론매체에도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 스스로도 독도편입사실을 모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 칙령 제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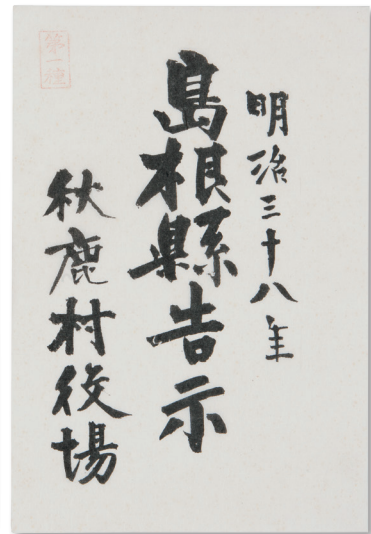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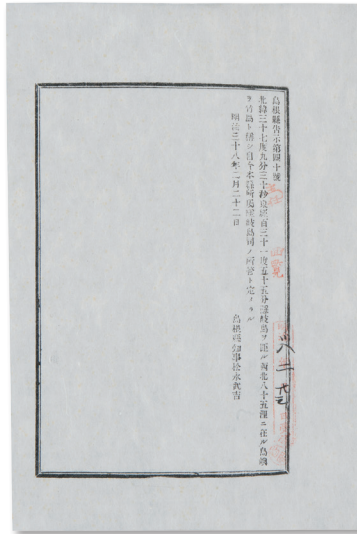
대한제국의정부 / 대한제국 / 1900



1900년 10월 24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가 의정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울릉도·독도’ 지역은 강원도 27번째 군으로 대한제국의 정식지방관제에 들어갔다. 특히 칙령 41호 제2조에는 독도(石島)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독도가 공식적으로 우리영토임을 선포한 것이다.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마네현 / 일본 /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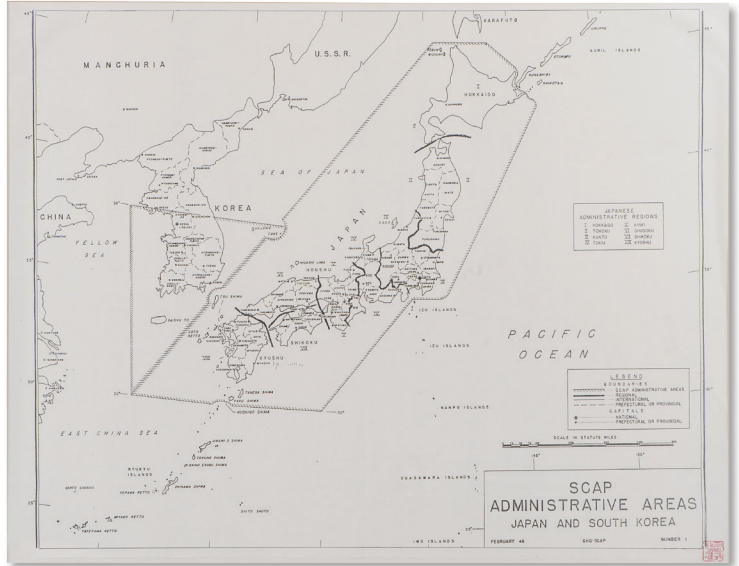


1905년 2월 22일자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시마네현(島根縣) 지사명의를 고시문(告示文)이다.

이 고시는 중앙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행한 것이며, 이를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하지 않고 회람의 형태에서 그쳤다. 또한 영토편입의 사실조차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 군정청관할지도

미 군정청 / 연합국 / 1946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자 했다.

연합국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탈한 영토 중 한국과 일본에 관련한 부분을 SCAPIN 제677호를 통해 규정짓고 있다.

지도상에서 독도는 일본식 발음인 'TAKE'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의 영토에서 선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남한의 영토로 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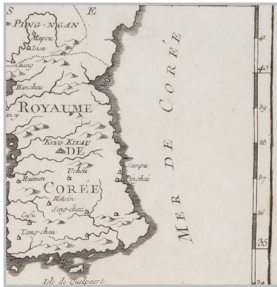


## 잃어버린 바다, 조선해(Sea of Korea)

르네상스 신기술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럽 여러 나라는 대항해시대의 막을 올렸다. 18세기 중엽까지 지속된 이 기간 동안 서양의 여러 국가는 전 세계를 탐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당시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서양 지도는 동해를 조선해 즉 'Sea of Korea', 'Mer De Corée', 'Korea Gulf'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 바다를 조선해로 인식하여 바다의 명칭을 '朝鮮海'로 표기한 지도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바다 조선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키며 대륙으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 L'EMPIRE DE LA CHINE

jaques-Nicholas Bellin / 프랑스 / 1748



우리나라를 ROYAUME DE COREE(조선왕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의 동쪽 바다 역시 MER DE COREE(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울릉도는 'Fan ling-tao', 독도는 'Tchian-chan-tao'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울릉도를 반릉도로 우산도를 천산도로 잘못 이해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만국여지전도

일본 / 1861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재편집하였으며, 관허(官許)를 받아 제작된 지도이다.

조선은 독립된 국가로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인 경성(京)만 표기되어 있다. 조선의 동쪽 바다는 조선해(朝鮮海)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동쪽 바다가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되어 있어, 지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신태수 SHIN, Taesoo

1962년 경북 의성 출생, 1986년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1998년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 개인전

- 2014 백령도, 인천, 안동, 교토(섬, 서해5도) 백령병원 / G1갤러리,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동시대 갤러리
- 2013 제주에서 백령, 동시대 갤러리, 교토 / 섬, 백령도, 자하미술관, 서울
- 2012 꽃을 기다리는 나무, 마린갤러리, 부산 / 정림리에서의 산책, 박수근 미술관, 양구
- 2011 가슴은 눈을 그리워하고, 사카이마치갤러리, 교토
- 2010 眞景散墨, 사카이마치갤러리, 교토 / 眞景散墨, 북촌미술관, 서울
- 2009 바람의 색깔, 안동시민회관, 안동
- 2007 청량산 가는 길, 모란갤러리, 서울
- 2003 안동주변의 풍광, 공평아트센터, 서울
- 2001 진경산수,진인정신, 맥향화랑, 대구
- 2000 신태수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 1997 신태수전, 송아당 화랑, 대구

## 단체전

- 2015 몽중애상 삼색도, 서울 자하미술관 /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광주 신세계 / 풍류남도 프로젝트, 행촌미술관
- 2014 풍죽전, 광주 국립박물관
- 2013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 아트 플랫폼 / 아! 백령도, 부평아트센터 / 2013 세계유산 in 안동, 한전프라자갤러리,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금강송전, 울진청소년수련관
- 2012 봄날은온다, 송도 포스코건설 / 울진 금강송전, 울진청소년 수련관 /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인천아트 플랫폼 / 세계유산 in 안동, 대구문화예술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12 해안10-1전, 인천아트플랫폼
- 2011 고려청자와 한국의 수목화, 교토국제교류센터
- 2010 산을 내려가는 물의 마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09 한국화의 현대적변용, 서울 예술의전당
- 2008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리지 않으랴, 장흥천관문학관
- 2007 백제의 향기, 부여의 꿈, 부여정림사지박물관 외 다수

## 레지던시

- 2015 행촌문화재단 이마도 레지던시      2014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스튜디오      2011 박수근 미술관 정림리창작스튜디오

## 작품소장

국방부 용산청사, 박수근 미술관, 북촌미술관, 자하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외 다수

